

## 대학도서관의 열린서비스

- 전남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

김 선 아 · 서 향 선  
전남대학교 도서관 사서

### < 목 차 >

1. 들어가기
2. 대학도서관 개방의 배경
3.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현황
  - 3.1 외국 대학도서관
  - 3.2 국내 대학도서관
4. 전남대학교 도서관의 개방현황
  - 4.1 개방단계
  - 4.2 『열린도서관』 운영사례
  - 4.3 추진경과
  - 4.4 이용현황
5. 문제점 및 향후 과제
6. 마치며

참고문헌

## 1. 들어가기

최근 들어 대학들이 사회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다양한 발전모델을 정립하고 새로운 운영을 시도하고 있다. 지식기반 정보화사회의 도래에 따라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고 이에 부응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의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대학 내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산학협동체제를 통하여 대학내 연구활동의 결과가 산업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체들은 미약한 연구기반을 보강할 수 있는 협력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한 체육이나 교육, 문화시설 등 대학 내의 자원을 지역의 주민이나 기업체에 개방하기도 하여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유대가 보다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대학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대학도서관의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대학내 구성원들의 연구와 교수학습활동만을 지원해왔던 그 동안의 역할에서 벗어나 대학이 위치한 지역사회 구성원에게도 대학도서관이 소유한 자원을 개방하여 공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것이다.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개방은 대학의 연구, 교육, 봉사의 기능 중에서 지적 생산활동이나 사회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통한 봉사의 기능 외에 대학이 가진 인적, 물적 자산을 직접 지역과 나누는 봉사이기도 하다. 즉 대학이 그동안 표방해 왔으면서 그다지 실천적이지 못했던 주요 기능중의 하나인 봉사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대학도서관의 측면에서는 질높은 장서와 서비스 등 도서관이 가진 자원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하다. 또한 대학이 지역의 활동주체들의 자기개발이나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생산, 제공해 줌으로써 지역사회의 경쟁력이 강화되면 이는 다시 대학발전을 위한 기반과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시작되고 있는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의 배경, 사회적 요인들을 살펴보고 국내외 대학도서관들의 개방 현황, 올해로 도서관 전면 개방 5년을 맞이한 전남대학교 도서관의 개방 현황을 분석, 점검하여 앞으로의 대학도서관 개방이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 2. 대학도서관 개방의 배경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도서관의 개방은 사회전반의 민주화, 개방화에 따라 대학이 가진 본래적 의미의 공공성을 생각할 때 대학도서관을 모든 사람이 공유하도록 개방해야 마땅하다는 당위적인 측면과 대학의 경쟁력이나 교육수요 창출 등을 위한 대학측의 현실적 필요에 의한 측면, 당사자인 지역사회 주민들의 요구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당위적인 측면에서 도서관 개방을 주장하는 입장은 다음과 같다.

사전적 의미에서 “대학은 연구, 교육, 봉사 등의 활동을 사명으로 하는 지성인의 공동체로서 고도의 지적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여 그것을 국가사회를 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K. Jaspers는 대학의 기능을 아카데미적인 교수, 학문적인 연구, 문화생활의 창조를 목적으로 하는 고전적인 기능으로 지적한 바 있으며 Perkins는 “지식의 습득이라는 측면은 대학에 있어서 연구자의 사명수행으로 나타나며 지식의 활용은 대학의 사회봉사의 사명으로 구현된다”라고 하며 지식의 획득, 지식의 전달, 지식의 응용 등으로 대학의 기능을 지적하고 있다.(이광자, 1999)

즉, 대학의 기능은 학문을 전수하고 배우는 교수의 기능, 학문을 창조하는 연구의 기능, 그리고 이러한 교수와 연구의 결과를 사회에 적용하여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봉사의 기능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대학은 본래 공공성이 강조되는 기관이어야 하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이러한 사회적 기능과 역할이 미흡하였다. 오히려 공공성에 바탕을 둔 기관이라는 국민적 합의 하에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면서도 대학이 가진 자원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그러므로 대학의 공공성 확보와 사회에 대한 봉사 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대학도서관이 개방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대학도서관 개방의 흐름을 반영하듯 최근에는 고려대학교의 올리브 프로젝트(Open-LIBrary Project)나 이화여자대학교의 올리버 프로젝트(Open Library with her)처럼 실질적으로 대학도서관의 자료를 나누게 되는 대학 내부 구성원들에 의해 대학도서관을 개방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대학은 공공성을 그 성격의 본질로 만들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많은 보조금을 대학에 지급하고 대학 밖의 시민들도 대학에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은 대학이 존재하는 의미인 공공성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 공공성의 달성은 사회 구성

원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로 요약할 수 있다.

두번째는 대학 자체의 필요성에 의한 이유다. 현재는 대학이 학생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에서 학생이 대학을 선택하는 시대가 되어 학생이 대학에서 소비자로서 영향력을 갖게 되었고(고성순, 1999) 많은 대학들이 우수한 신입생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0년대 이후에 여러 대학들이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대학의 교육과 시설을 일부 개방함으로써 해당 대학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인지도를 높이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도서관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년 발표한 “대학도서관활성화방안”에서 대학도서관을 대학의 내부시설에서 국가 및 지역사회의 ‘공공의 기반시설’로 육성, 산학협력 및 대학 지역사회 협력의 거점화, 지역주민에 대한 평생학습 및 지식정보 지원 기능 강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산업체 연구기관 등의 간행물 확충, 대학별 특성화 도서관 설치 등을 명시하여 대학도서관을 공공재로서의 국가기반시설로 보고 대학구성원들에게 크게 해가 되지 않는 한 도서관을 개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대학종합평가 항목 중 지역주민 및 산업체를 위한 도서관 개방은 대학과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공헌도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대학이 지역사회의 한 부분으로 사회봉사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지역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대학에 대한 지원과 경쟁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대학종합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도서관을 개방하기 시작한 것이다.

세번째는 사회의 정보화, 고도화가 추진되면서 생애를 통한 학습의 중요성이 커지고 각종 단체나 기업에서도 조사 및 연구활동이 점차 중요해지면서 소수의 연구자만이 아닌 모든 다양한 계층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정보자원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필요성과 욕구의 증가에 따라 풍부한 정보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대학도서관 개방에 대한 요구도 많아졌다. 특히 대학에서 평생교육원 등의 시설과 창업보육센터, 교사연수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의 대학과 연계한 활동이 많아지면서 대학도서관에 대한 이용 요구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대학도서관 개방은 이러한 대학 내외의 상황변화를 배경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 3.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현황

#### 3.1 외국 대학도서관

##### 3.1.1 미국

민주주의의 이념과 실용주의적 가치를 구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던 미국의 주립 대학들은 “미국사회의 모든 계층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목적 교육과정을 채택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현실적 요구에 충실히 봉사한다”는 목표를 지향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 사회봉사기능으로 정착하였다. (윤희윤, 2002)

버클리대학은 지역주민이 버클리 공공도서관에 와서 자료를 신청하면 공공도서관에서 버클리대학에 자료를 의뢰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대출해 준다.(곽주원, 2000)

버지니아대학 도서관도 16세 이상의 지역주민에게 대학도서관을 개방하고 있으며 대출이 가능하고 대부분의 서비스는 외부이용자와 학내 이용자가 동등한 수준이다.

일리노이대학교 도서관은 주 주민에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리노이주 대학도서관들과 공공도서관들이 네트워크에 의해 자료를 검색하고 대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이 오래전부터 추진되었으며 지역주민들에 대한 봉사가 활발한 편으로 지역네트워크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공공도서관과의 연계성이 돋보이며 도서관후원회 조직이 대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심효정, 2003)

##### 3.1.2 독일

독일의 대학도서관은 모두 국립으로 대학의 학생뿐만 아니라 그 대학이 속한 도시의 모든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학내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학생들과 동등한 자격이 주어지는 곳이 많다.

쾰른대학교 도서관은 신분증만 제시하면 누구에게나 이용자 카드가 발급되며 유효기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

보쿰대학교 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이용조건이 학내 학생들과 동등하나

다만 학생들의 학습용 지정도서는 대출할 수 없다.

하이델베르크대학 도서관은 안내 팸플릿에 “누구든지 이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도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성순, 1999) 라고 하여 대학에 속해 있는 교직원 및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에게도 개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독일의 대학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겸하고 있으며 비교적 대학도서관 개방이 오래전부터 정착되어 추진되고 있는 국가라 할 수 있다.(심효정, 2003)

### 3.1.3 영국

영국에서 대학개방을 촉진시킨 주된 요인은 평생교육의 개념과 정부주도의 대학과 산업과의 연계정책을 들 수 있다.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관내 이용은 자유로운 편이나 관외대출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용자에게 이용허가서를 받거나 일부 도서관들은 기업에 대해 유료정보서비스를 하고 있다.(고성순, 1999)

옥스퍼드대학의 보들리언 도서관은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기관 관계자, 졸업생, 옥스퍼드 지역내에 있는 연구자 및 타대학의 학생, 학외 이용자에게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학외 이용자의 경우는 허가서를 받아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허가서 신청은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만 일단 허가서를 받고 나면 도서관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세필드(Sheffield)대학교 도서관의 경우는 일반인에게 연회비를 받는다.

이와 같이 도서관 개방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만 18세 이상이고 정당한 도서관 이용사유가 있으면 누구나 도서관 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은 열람실 이용, 자료 이용 및 복사 등의 시설은 완전히 개방하고 있는 편이다. 졸업생, 각급학교 교사, 도서관 협약에 가입된 기관의 이용자 등은 대부분 무료로 자료대출이 가능하다.(심효정, 2003)

### 3.1.4 캐나다

캐나다는 오래 전부터 미국과 협동하여 도서관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외부 이용자에 대한 대학도서관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같지만 넓은 면적에 비해 고등교육기관의 수가 적기 때문에 대학도서관의 외부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는 사회적으로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온타리오주에 있는 토론토대학 도서관은 온타리오주의 다른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교직원과 학생에게는 그들이 속해 있는 대학도서관에서 발행하는 상호대차카드

에 의해 대출을 하고 있고 그 외 외부이용자에게는 요금을 지불하는 특별대출카드를 발급하여 대출을 해주고 있다.

브리티쉬 콜롬비아대학 도서관(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Library)은 주의 세금으로 운영비가 조달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관내이용이 가능하다. 처음에는 무료로 대출을 해 주었으나 현재는 외부이용자에게는 연간회비를 받고 있다.(고성순, 1999)

### 3.1.5 일본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에서 1985년에 대학도서관 개방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여 이제까지 개별적으로 대학도서관이 대응하던 일반 시민에의 서비스 문제를 국립대학도서관 전체로서 대응하게 되었다. 1988년에는 문부성의 사회교육국이 생애학습국으로 개조되고 국가의 시책으로서 평생교육을 촉진시키게 되어 대학도서관은 한층 사회적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고성순, 1999)

일본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에 걸쳐 활기를 띠었는데 그 유형은 공공도서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의한 상호대차와 인터넷을 통한 대학도서관의 장서개방이다.

게이오대학 도서관은 고등학생 이상만 출입이 허용되며 신분증으로 자유로운 도서관 출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에서 이용이 불가능한 자료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하고 대출은 되지 않는다.

니이가타대학교 도서관은 만20세 이상 일반시민에게 개방하며 도서관 출입시 기록부에 이름, 주소, 입관시각 등 기재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대출은 2권 14일 동안 가능하며 지역주민들을 위해 도서관 홈페이지와 도서관내에 이용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하고 있다.(심효정, 2003)

## 3.2 국내 대학도서관

고성순의 1999년 국내 대학도서관 개방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기관(82개관)의 48.8%가 도서관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있고, 이중 국·공립대학 도서관은 17.1%, 사립대학 도서관이 31.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 관내열람외에 대출까지 포함한 개방을 하고 있는 곳은 9개관으로 조사돼 우리나라에서의 대학도서관 개방은 매우 미진함을 보였다.

이후 1999년에서 2001년 사이에 여러 대학들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도서

관을 개방하였다. 봉사범위에 있어 공무원이나 교사 등 특정 계층으로 한정된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지역주민 전체에게 개방하고 있고, 대출 권수는 3~5책 정도이고 기간도 7일에서 14일 정도로 하고 있다. 자료이용을 위한 비용은 무료로 개방하는 곳도 있고 예치금으로 일정액을 받아 탈퇴 시 돌려주기도 하고 발전기금으로 받아 반환하지 않는 곳도 있다. 예치금 액수는 대체로 5~10만원 선이다.

이와 같이 대학도서관의 개방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그 유형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 4. 전남대학교 도서관의 개방현황

### 4.1 개방단계

#### 4.1.1 초기 개방단계 : 개관 ~ 1996년까지

다른 대부분의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타대학에서 도서관 이용 추천서를 가지고 방문하는 이용자나 도서관장이 허가하는 자에 한해 자료의 열람을 허용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 4.1.2 소극적 개방단계 : 1997년 ~ 2000년 2월까지

1997년 도서관 출입구 통제기를 없앴으로써 지역사회에 도서관 자료의 관내열람을 허용하는 개방을 시작하였다. 여기에는 도서관에 대한 자유로운 출입 및 시설의 이용, 자료의 관내열람 및 복사, 사서들에 의한 정보서비스 제공이 포함된다. 비록 자료의 대출을 허용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다른 대학들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외부 개방을 시작한 것이다. 다른 대학들의 경우 자료열람실과 일반열람실이 구분되지 않아 출입통제기를 없애는 경우 열람석 부족으로 인한 내부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사례가 많았다. 이에 비해 전남대학교 도서관은 자료열람실과 일반열람실의 출입구가 분리되어 있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없이 도서관을 개방할 수 있었다.

같은 해 5월에 광주전남지역 13개 대학도서관이 자료공동이용 협약을 맺고 자료공동이용증을 제작하여 각 대학에서 10개씩 가지고 이들 대학이용자에게는 각 대

학별 10인 이내에서 자료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인당 대출 권수와 기간은 5권 10일로 하였다.

#### 4.1.3 적극적 개방단계 : 2000년 3월 ~

대출을 제한하는 관내열람만의 소극적 개방은 지역사회주민들의 자료이용에는 많은 불편이 따르는 것이었다. 또한 정보의 유통,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지식정보화사회에서 대출을 포함한 전면적인 자료개방에 대한 요구는 더욱 더 많아졌고, 이러한 요구는 전남대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회교육원생, 연수교사 등의 이용자층에서 주로 제기되었다. 이에 전남대학교 도서관은 2000년 3월 『열린도서관』을 표방하며 이용자 대상에 거의 제한을 두지 않고 지역주민 등 외부이용자에게도 자료대출을 하여 내부이용자와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도서관 자료를 개방하였다.

### 4.2 『열린도서관』 운영사례

#### 4.2.1 추진목적

- 21세기 지식기반 정보화사회를 맞이하여 도서관 자료를 개방함으로써 우리 도서관이 지역사회를 위한 정보센터의 역할을 담당한다.
- 지역사회 각종 단체, 기업체에 학술정보 및 기술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산업 및 문화발전을 도모한다.
- 지역사회 주민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인재육성에 기여한다.
- 우리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반을 조성한다.

#### 4.2.2 시행내용

가. 시행일시 : 2000. 3. 20(월) ~

나. 이용대상

- 광주·전남지역 각종 단체 및 기업체 임직원
- 지역사회 주민 및 초·중·고등학생

- 우리대학 사회교육원, 언어교육원, 전자계산소 수강생, 휴학생  
(단, 군입대 휴학자는 제외)

다. 도서관 이용범위

- 외부이용자에게 도서관 자료실의 출입 및 자료 대출을 허용
- 도서관 별관의 자유열람실 이용은 원칙적으로 금함

라. 대출 책수 및 기간 : 5책 14일

마. 도서관 이용 등급

- 일반이용증 : 발급 후 1년간 이용(원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 평생이용증 : 전남대학교 및 도서관 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퇴직  
교직원, 교내기관에서 추천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이  
용기간의 제한이 없는 평생이용증을 발급

#### 4.2.3 「열린도서관」 운영 홍보

- 대학홈페이지 및 도서관홈페이지에 게재
- 교내통신망(용봉아르미)에 안내문 게재
- 교내·외 해당기관(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공문발송하  
여 자체 간행물 등에 홍보 요청
- 지역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 4.3 추진경과

도서관을 무료로 개방한 이후 약 9개월 동안 이용자가 1,400여명에 이르는 등 급증하였고 외부 이용자 급증에 따른 도서관 이용증 발급업무 및 연체관리 등 관련업무량이 증가하고 도서관 이용증 발급비용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단순히 일회성 이용을 위해 도서관 이용증을 발급 받는 이용자도 많아 이러한 이용자는 가능하면 관내에서 열람을 하도록 유도하고 자료의 대출을 위한 이용증의 발급은 지속적인 도서관 이용의 의향이 있는 이용자들로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성이 생겼다. 또한 대출 권수를 7권14일로 하여 학부생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개방하자 총학생회 측에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2000년 12월부터는 이용증의 무료발급을 중지하고 외부이용자에 대해서 이용증 발급시 50,000원의 예치금을 받고 탈퇴시에 돌려주는 예치금제도를 도입하였다. 1회성 이용을 줄이기 위해 1년간의 의무이용기간을 두고 대출 권수도 초기 7권에서 5권으로 조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예치금제도로 전환한 후 우리대학 비정규직 직원, 연구원, 대학원 수료자, 휴학생 등 넓은 의미에서 우리대학 소속원들에게도 예치금을 받게 되자 이들 이용자들이 예치금 징수에 대해 불만을 표하여 외부이용자들을 이용자군별로 구분할 필요성이 생겼다. 1년간의 의무이용기간을 둔 것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일부 이용자의 경우 전화번호, 주소, 직업 등 필수사항에 대해서 기재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도서관에서는 2차로 도서관 이용증 발급방법을 개정하였다. 2003년 9월부터 이용자를 이용자군별로 구분하여 우리 대학교 비정규 직원, 연구원, 대학원 수료자 및 휴학생 등에게는 예치금을 면제하고 각 신분별 보증인의 보증을 필하면 이용증을 발급하는 보증인 제도로 변경하고 일반외부이용자에게는 현행대로 예치금을 받는 방법을 병행하는 것으로 예치금제도를 완화하였다.

그리고 외부 일반인이 50,000원의 예치금을 납부하고 도서관 이용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후 전원 발급을 허용하는 신청제로 운영하였으나, 기본사항의 기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도서관 이용에 따른 유의사항의 준수 여부 및 신분을 심사한 후에 선별하여 이용증을 발급하는 허가제로 변경하게 되었다.

의무사용기간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는 대신 사용기간에 따라 일반이용증과 임시이용증으로 구분하여 발급하게 되었다. 임시이용증은 별도로 제작하지 않고, 사진이 부착된 이용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ID번호를 기록한 바코드를 부착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임시이용증은 대학원 수료자(졸업논문 제출대상자), 휴학생, 특수대학원 과정 원생, 평생교육원, 언어교육원 강사 및 원생, 중등교육연수원 연수교사 등 무료발급대상이 되는 이용자와 1년 미만 기간동안 사용신청하는 외부 일반인에게 발급하여 의무사용기간 축소에 따른 발급증 발급비용의 증가를 방지하였다.

## 4.4 이용현황

### 4.4.1 외부 이용자 현황

(단위 : 명)

연도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1-6월)	계
신규(A)	1,488	321	321	463	202	2,795
탈퇴(B)		24	87	118	80	309
A - B	1,488	297	234	345	122	2,486

이용증을 무료로 발급하던 도서관 외부개방 첫해인 2000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이용증 발급자가 1,400여명에 달해 월평균 150여명이 이용증을 발급받았다. 예치금제도로 전환한 후에는 신규 등록자가 2000년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이용자가 예치금 납부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과 한편으로는 1회성 이용을 위한 이용증 발급신청이 지양된 것으로 보인다. 예치금제도로 전환한 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의 통계를 보면 신규이용증 발급자가 연평균 369명, 탈퇴자가 77명으로 연평균 증가인원은 292명이다. 2000년부터 2004년 6월말 현재까지 총 등록인원은 2,486명이다.

### 4.4.2 직업별 현황

직업	타교학생	교사	회사원	취업준비 (졸업생)	휴학생	대학원 수료자
비율	17.7%	15.1%	12.6%	10.7%	9.2%	8.5%
직업	주부	학원강사	자영업	공무원	사회교육원	기타
비율	7.6%	6%	4.8%	3.2%	1.9%	2.7%

외부 이용자의 직업별 구성현황을 보면 타학교 재학중인 학생이 17.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교사가 15.1%, 회사원 12.6%, 졸업생 10.7%순으로 나타났다. 타학교 재학중인 학생들은 주로 광주전남지역 다른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로 이들의 이용률이 높은 것은 전남대학교가 광주·전남권에 있는 거점대학으로 소재위치나 규모가 크다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보인 교사들은 전남대학교에서 시행하는 교사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사들이 연수를 위

해 자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3위인 회사원들은 업무관련 자료나 자기개발관련 자료를 이용하고 있고, 4위인 졸업생들의 이용이 많은 것은 사회현상을 반영하고 있기도 한데, 졸업 후 바로 취직을 하지 못한 청년실업자들이 많아 이들이 취업을 위해 상당수가 내부이용자처럼 도서관에 남기 때문이다.

### 4.4.3 대출현황

#### 가. 연도별 대출현황

(단위 : 권)

구분 \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1-6월)	계
외 부	8,147	7,284	8,644	4,316	28,391
전 체	248,618	244,494	237,611	119,989	850,712
비율(%)	3.3	3.0	3.6	3.6	3.5

연도별 대출량은 한해 약 8,000여건 정도로 이를 전체 대출량에 비교해 보면 약 3.5%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아직은 전체 대출량에서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나. 주제별 대출현황

(단위 : 권)

구분 \ 주제	외부	비율(%)	순위	전체	비율(%)	순위
총 류	2,985	10.5	4	67,840	8	4
철 학	1,443	5.1	8	43,620	5.1	8
종 교	449	1.6	10	11,091	1.3	10
사회과학	4,466	15.7	2	125,968	14.8	2
어 학	1,741	6.1	7	28,694	3.4	9
순수과학	1,386	4.9	9	55,101	6.5	7
공 학	3,511	12.6	3	102,628	12.1	3
예 술	1,517	5.4	6	57,626	6.8	6
문 학	8,805	31	1	287,083	33.7	1
역 사	2,015	7.1	5	71,061	8.3	5
계	28,391	100		850,712	100	

대출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학류가 1위, 다음으로 사회과학, 공학, 총류순으로 이용이 많이 되어 전체 내부이용자와 이용 행태면에서 그다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사회과학, 공학의 대출된 자료들을 보면 공무원 수험서류나 공학관련 기사류의 수험서적들이 많이 대출이 되고 총류에서도 컴퓨터관련 자료들이 주로 이용이 되고 있다

내부이용자와 외부이용자 사이의 자료 이용에 그다지 차이가 없다는 것은 현재는 3.5%정도의 적은 이용량일 때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외부이용률이 증가할 경우 내부이용자에게 지장을 초래할 소지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외부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책이나 방향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 4.4.4 연체 현황

##### 가. 연도별 연체현황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1-6월)	계
외 부	1,400	1,214	1,274	722	4,610
전 체	61,555	51,396	46,907	19,463	179,321
비율(%)	2.27	2.36	2.72	3.71	

##### 나. 대출량 대비 연체비율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1-6월)	계
외 부	1,400	1,214	1,274	722	4,610
비율(%)	17.18	16.67	14.74	16.73	16.33
내 부	60,155	50,182	45,633	18,741	174,711
비율(%)	25.02	21.16	19.93	16.20	21.27

외부 이용자 연체가 전체 도서관 연체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77% 정도이며 내부이용자와 외부이용자의 대출량 대비 연체비율을 비교해보면 오히려 내부이용자의 연체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도서관이 외부이용자에게 자료를 개방

할 때 연체관리나 자료회수가 내부이용자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막연한 선입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 5. 문제점 및 향후 과제

위의 지난 4년여의 자료이용 행태 분석결과 외부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자료가 문학 등의 교양서적류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가 초기에 도서관을 개방하는 목적, 취지와 좀 거리가 있는 결과이다. 단순히 소설 등의 교양류를 대출하는 것은 공공도서관의 영역과 다르지 않아 오히려 공공도서관의 서비스영역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도서관이 많이 부족한 형편이므로 대학도서관이 이에 대한 보완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공공도서관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적 관계에서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적 관계설정이나 협력시스템 마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향후의 정보서비스 방향은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쪽 즉 전문학술, 기술자료에 대한 서비스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현황이나 요구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지역기업체나 단체의 현황, 이들 기관의 도서관이나 자료실 보유현황, 타 전문도서관 현황, 주로 이용하는 자료현황 등의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를 위한 정보서비스의 구체적 방안, 타 도서관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분담방안 등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산학협동 프로그램, 창업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보다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들 프로그램과 연계한 도서관의 정보서비스도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도서관 운영면에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외부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자료가 내부 이용자들의 이용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아직은 내부 이용자들이 외부 이용자들의 자료 이용에 대해 큰불만을 표하지는 않고 있으나 외부 이용자들의 이용률이 증가할 경우 내부 이용자들의 불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외부이용자에 대한 정보서비스가 내부이용자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일부 이용자의 경우 필요로 하는 정보탐색에 사서의 도움을 받는다기보다 그 정보자체를 사서가 바로 제공하여 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내부 이용자에 비해 많고 정보탐색방법이 서툴기 때문에 자료이용 지도에도 한계가 있어 이들의

정보탐색지원을 위하여 사서가 장시간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도 한다. 이는 외부 이용자들이 내부 이용자들에 비해 전남대학교 도서관 이용환경에 서툰고 자료탐색의 경험이 적음에 기인한 것으로 이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이용지도가 필요하다.

셋째, 아이를 동반하고 오는 이용자도 많은데 이로 인한 면학분위기 저해문제도 있다. 아이를 위한 놀이시설이나 독서시설이 마련된다면 좋겠지만 현재의 도서관 여건으로서는 이에 대한 투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개방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대학도서관이 지역사회 개방에 대해 소극적인 것에 대한 변명은 되지 않는다. 대학이 누리고 있는 혜택들은 대학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사회가 허락해 준 것이므로 대학의 사회에 대한 기여는 의무이다. 그러므로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개방도 당연한 의무로서 인식해야 한다. 여기에 비추어 보면 전남대학교 도서관은 문화적 기반시설이 약한 지방에 위치한 지방거점대학으로서 지역주민의 상당수가 전남대학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환경에 있고 국가나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전남대학교 도서관은 1997년 출입구 통제기를 없앴으로써 지역사회에 도서관 자료의 관내열람을 허용한 것을 시작으로 2000년 3월부터는 자료의 대출도 허용하여 내부 이용자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도서관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였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에 대한 도서관 개방은 다른 도서관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하였으나 완전 개방 이후 지난 4년 반 정도의 이용현황을 볼 때 그리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자료이용을 위하여 방문하는 외부이용자에게 자료를 열람하고 대출할 수 있게 하는 것 외에 내부이용자들에 비해 도서관 이용에 서툰고 보다 다양한 요구를 가진 외부이용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survey나 요구사항의 수렴 등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이는 외부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본연의 업무 외에 부수적인, 시혜적인 업무라고 생각하는 것, 외부 이용자들이 연체를 많이 할 것이라는 막연한 선입견 등 개방에 대해 은연중에 갖고 있는 부정적 인식이 그 원인일 수 있다. 또 개방에 대한 의지만으로 국가나 대학 당국의 지원이 없이 개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에는 재정적, 인력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이었다.

그러므로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의 진정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서들의 적극적 마음가짐과 국가 및 대학당국의 대학도서관 개방을 위한 지원, 내부이용자들의 자료 공유에 대한 이해가 관건이라 하겠다.

## 6. 마치며

현대는 대량의 정보가 빠르게 생산, 유통되며 축적되고 있어 각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업무현장에서 지속적인 지식의 갱신을 요구받고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정보가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다양한 정보의 빠르고 정확한 습득은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보화사회를 살아가는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정보접근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그 기회는 소수의 특권층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각 분야의 다양한 지적자원을 소유한 대학도서관이 그 인적, 물적자원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정보접근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일이다. 또 대학은 지역사회의 한 구성단위로서 지역과 유리되어 존재할 수 없고 지역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발전해야 한다. 대학이 지역의 시민이나 기업, 단체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생산, 제공해줌으로써 지역사회가 발전되고 이를 통하여 대학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작되고 있는 대학도서관의 개방이 이런 공공성과 당위성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학의 이미지 개선과 인지도 향상을 위해 추진되기도 하며 또 지역사회 주민들에 의한 개방요구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어떤 이유에서 시작되었든 대학도서관의 개방은 사회의 민주화, 개방화 흐름과 함께하고 있다. 또한 이미 오래전부터 대학도서관의 개방을 시작한 국외의 여러 나라들의 예에서 보듯이 개방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대학도서관 개방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할 때이다. 다만, 계획 없는 대학도서관의 개방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개방을 준비하는 대학이 있다면 대학내 구성원들과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개방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먼저 개방한 대학들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보다 알찬 내용으로 개방을 추진하여야 한다. 현재 개방하고 있는 대학들도 그간의 현황을 파악, 점검하여 개방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차원이 아닌 적극적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개방이 되어야 한다.

도서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외부이용자 수용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없이 대학도서관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주민과 도서관이 얻게 되는 이익을 생각해 볼 때 이를 위해 투자하는 비용과 노력보다는 개방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더 크다.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재정적, 인력적 문제보다는 개방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가짐일 수 있다. 보다 열린 마음으로, 여유가 있을 때 나누는 시혜적인 관점이 아니라 대학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권을 해체한다는 관점을 가질 때(고려대학교 올리브, 2003) 대학도서관 개방의 진정한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고려대학교 올리브. 고려대학교 ‘올리브 프로젝트’, 『도서관문화』 44(3), 2003
- 고성순.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1999
- 곽주원. 대학도서관이 이웃으로 태어나고 있다, 『문화도시 문화복지』, 2000
- 김영호. 지역주민 정보서비스구축운영사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학도서관정보서비스우수사례집』
- 박경원. 지역정보센터로서의 대학의 역할, 『서울여자대학교 여성연구논총』 12(9), 1997
- 박준식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과 협력활동』, 춘계 계명대학교 사서교육원 세미나, 2001
- 윤희윤. 『대학도서관경영론』, 대구 : 태일사, 2002
- \_\_\_\_\_.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을 말한다, 『도서관문화』 44(3), 2003
- 이광자. 지역사회 발전에 있어서 대학의 역할과 사명,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7(74), 1999
- 이시영.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에 관한 일고, 『사대도협회지』 2, 2001
- 이화여대 올리버. 이화여자대학교 ‘올리버 프로젝트’, 『도서관문화』 44(3), 2003
- 정병진.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대학도서관 개방,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2(4), 2001
- \_\_\_\_\_. 지역정보화를 위한 대학도서관의 역할, 『사대도협회지』 1, 2000
- 진창남.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담론, 『도서관문화』 44(3), 2003